

KIA “4위 자리 내놔”…LG와 마지막 승부

오늘 챔피언스리그서 격돌
고참 베타·최영필까지
휴일 반납하고 특별훈련
나지완·안치홍 컴백 ‘웃음’
서동욱 맹장수술 이탈 ‘한숨’

KIA 타이거즈가 포기할 수 없는 4위 자리를 놓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26일은 야구가 없는 휴식일이었다. 하지만 챔피언스필드는 바쁘게 돌아갔다. 막내 최원준부터 만형 최영필까지 경기장에 나와 구슬땀을 흘렸다. 2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사실상의 ‘4위 결정전’인 LG 트윈스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월요일 특별훈련이 진행된 것이다.

특별훈련이었지만 젊은 선수들 위주로 진행하기로 한 훈련이었던 만큼 최영필과 베타 등이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내자 김기태 감독의 입에서는 “여기 열 일이나”는 소리가 나왔다. 방망이를 들고 있는 신종갑을 보고도 김 감독은 “신종갑이 왜 여기 있느냐”며 웃었다.

김기태 감독이 그리워 했던 두 선수도 있었다. 왼쪽 갈비뼈 미세 골절로 공백이 길어진 외야수 나지완과 복귀 후 5일 만에 자취를 감췄던 내야수 안치홍도 이날 선수단과 훈련을 진행했다. 두 선수는 정상적으로 배팅 훈련을 소화하면서 복귀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지난주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훈련을 이어왔던 김선빈은 이날 개인 일정으로 훈련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2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김기태 감독으로부터 컨디션 점검을 받을 예정이다.

김기태 감독도 선수단과 함께 맘을 흘렸



휴식일이었던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된 특별훈련에서 KIA 김기태 감독(왼쪽 세 번째)이 김호령에게 시범을 보이고 있다. 갈비뼈 미세골절로 재활을 했던 나지완(왼쪽 두 번째)도 타격 훈련을 소화했다.

다. 최근 타격 페이스가 떨어진 김호령을 붙잡고 특별 개인지도를 하기도 하고 어린 선수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 웃는 표정으로 선수들을 대했지만 속이 바짝바짝 타는 김기태 감독이다.

KIA는 4연승 뒤 2연패를 당하면서 4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두 경기 모두 불안한 수비 탓에 눈 앞에서 놓친 아쉬운 경기였다. 벤치에서 속을 태운 김기태 감독에게는 26일 또 다른 악몽이 찾아왔다. 유격수 강한울이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이번에는 올 시즌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하면서 2루

를 수성 해준 서동욱이 26일 맹장수술을 받으면서 전력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다.

서동욱의 수술 소식에 김기태 감독은 “이렇게 대본을 쓰라고 해도 못 쓰겠다. 누구 하나가 들어오면 누가 맞춰 자리를 비우게 된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야수진의 출발상으로 고만은 쌍였지만 4강 꿈을 놓을 수는 없다. KIA는 SK가 9연패로 뒷걸음질을 치는 사이 5위 8부 능선을 넘었다. 앞으로 SK가 남은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KIA는 남은 6경기에서 3승3패를 기록하면 ‘가을 잔치’의 꿈을 이룬다.

하지만 와일드 카드 결정전은 4위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다. 두 경기를 연속 이겨야 하는 부담감을 달고 안방에서 두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4위 자리가 필요하다. 2연패로 4강 확률이 뚝 떨어졌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있다. 나지완과 안치홍의 복귀에 대한 선수들의 기대감도 크다.

양현종을 앞세운 KIA가 27일 엔트리 카드 변동으로 분위기를 바꾸고 LG를 상대로 4강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강정호 2000년 내야수 첫 20홈런

NL 이달의 선수 후보로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뜨거운 방망이가 9월 말에도 식을 줄 모른다.

강정호는 26일 미국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 경기에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홈런 3타점으로 활약을 이어갔다.

강정호는 7회말 2사 1루 3볼에서 코다 글로버의 시속 155km 상커를 잡아당겨 7-5로 앞서가는 시즌 20호 투런포를 터트렸다. 아시아 출신 내야수 첫 20홈런이다. 팀은 7-10으로 역전패했지만, 이날 강정호의 활약은 피츠버그 선수 중 군계일학이었다.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20개를 치면 ‘장타자’로 인정받는다. 작년에는 64명이 홈런 20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은 26일 현재 103명이 해당 기록을 달성했다. 평균적으로 팀당 2~3명씩 홈런 20개를 기록하는 점을 고려하면, 강정호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명실상부한 ‘장타자’다.

강정호에 앞서 홈런 20개를 넘긴 아시아 출신 타자는 단 2명밖에 안 된다. 마쓰이 히데키는 2004년 홈런 31개를 시작으로 모두 5차례 시즌 20홈런을 돌파했고, 추신수는 4차례 기록해 그 뒤를 잇는다.

강정호가 남은 7경기에서 홈런 2개를 추가하면, 추신수가 보유한 역대 한국인 타자 최다홈런 22개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올해 강정호는 무릎 수술 여파로 5월 에이 시즌을 시작했고, 8월 말에는 어깨 부상으로 부상자명단(DL)에 올라가 98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한 가운데 홈런 20개를 넘겼다. 강정호는 297타수 만에 해당 기록을 달성했는데, 올해 20홈런을 넘긴 타자 중 유일하게 300타석 미만이다.

내년 강정호가 부상 없이 1년을 보낸



다고 가정하면 마쓰이가 보유한 아시아 선수 최다홈런(31개) 기록까지 넘볼 만하다.

타율 0.355(62타수 22안타)·홈런 6개·18타점·OPS 1.282 등 뜨거운 9월을 보내는 강정호는 ‘9월 내셔널리그 이달의 선수(NL Player of the Month)’ 후보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한국인 선수 가운데는 추신수가 2008년 9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으로 첫 수상에 성공했고, 2015년 9월에는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개인 두 번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앞서 9월 둘째 주 강정호는 타율 0.522(23타수 12안타)에 홈런 4개·10타점으로 맹활약했고,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으로 ‘내셔널리그 급주의 선수(NL Player of the Week)’에 선정됐다.

/연합뉴스

슈틸리케 감독, 해외파 다잡고 국내파 손 잡다

2016 러 월드컵 2차 최종예선 3·4차전 명단 발표

“손흥민 불손한 태도 안돼” 대표팀 분위기 쇄신 쓴소리

중국전 출전 등 비판 의식…곽태휘 등 K리거 8명 포함

한국 축구대표팀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대표팀 에이스 손흥민(토트넘)을 겨냥해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손흥민의 태도에 관해 ‘불손한 행동’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3·4차전 출전명단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슈틸리케 감독은 최근 소속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슈틸리케 감독은 “선수 평가는 두 가지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다. 경기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다”며 “그의 경기력은 매우 좋다. 소속팀에서의 활약은 본인은 물론 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손흥민의 행동은 문제가 있다. 불손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최종예선 1차전 중국전에서 후반 44분 교체되자 물병을 던져야 논란이 됐다. 이전엔 스페인과 원정 평가전에서 교체 후 수건을 집어 던져 비판을 받았다. 이번만은 아니다. 월드컵 최종예선 1·2차전 기간 동안 내부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슈틸리케 감독은 ‘손흥민의 불손한 행동은 무엇인가.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외박을 나갔을 때 일도 포함된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화제를 돌렸다.

그는 “손흥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며 다른 해외파 선수들의 이름도 거론하며 “기성용, 이창용도 소속팀에서 감독과 문제가 있었다. 선수들의 잘못된 행동은 한국 축구의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수들은 본인이 국민의 주목을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3·4차전 선수 명단	
3차전(10월6일) : 카타르전, 4차전(10월11일) : 이란전	
FW	석현준(트라브존스포르) 김신욱(전북)
MF	한국영(알 가리파) 기성용(소원지시티) 정우영(충청 리안) 김보경(전북) 남태희(레퀴아) 이창용(크리스탈 팰리스)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손흥민(토트넘) 이재성(전북)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DF	김기희(상하이 선화) 곽태휘(서울) 홍정호(광주 부인) 장현수(광저우) 오재석(김해 오사카) 이웅·정동호(울산) 홍철(수원 삼성)
GK	김진현(세레스 오사카) 권순태(전북) 김승규(대전) 연갑뉴스

받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장 안에서 에너지를 쏟아내는 선수를 보고 싶다”고 밝혔다.

슈틸리케 감독이 이례적으로 팀 내 잡음을 공개한 까닭은 대표팀 분위기를 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곽태휘(FC서울)를 선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곽태휘를 지난 선발 명단에 뽑지 않은 건 실수였던 것 같다. 곽태휘 같은 베테랑이 중심과 규율을 잡아줘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슈틸리케 감독은 23명의 명단 중 권순태(전북), 곽태휘(서울), 이웅(울산), 정동호(울산), 홍철(수원), 김보경(전북), 이재성(전북), 김신욱(전북) 등 8명을 K리그 선수로 채웠다. 이는 실망스러운 경기 내용을 보였던 중국·시리아전 이후 슈틸리케 감독에 대한 비판이 확산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울리 슈틸리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다음달 초로 예정된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카타르, 이란과의 경기 출전 선수 명단을 발표하며 지난 중국전 때 손흥민의 태도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당시 축구팬과 언론은 대표팀 엔트리 23명을 모두 선발하지 않고 20명만 채운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과정에서 슈틸리케 감독이 해외파에 대한 신뢰

가 너무 두터운 나머지 K리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슈틸리케 감독은 시리아전 이후 K리그 경기를 집중적으로 관전했다.

평창동계올림픽 500일 앞으로

내년 4월까지 테스트이벤트 28차례



“하나 된 열정(Passion.Connected.)”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5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8년 2월 9일 강원도 평창올림픽 플라자에서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2월 25일까지 17일 동안 평창과 강릉, 정선 일원에서 열린다. 국내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것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으로 역대로는 두 번째다. 동계올림픽은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애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2003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캐나다 밴쿠버 및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와 경쟁했다. 1차 투표에서 51표를 얻어 밴쿠버(40표)와 잘츠부르크(26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평창은 과반 득표에 실패해 2차 투표를 치렀지만 밴쿠버(56표)에 3표 뒤진 53표를 얻어 개최권을 놓쳤다.

평창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재도전했지만 또다시 ‘과반 득표’의 악령에 발목을 잡혔다. 그리고 ‘2전 3기’의 도전 끝에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승전가를 불렀다. 우리나라는 경제·평화·환경·문화 올림픽이라는 4대 주제를 앞세워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나 된 열정’을 슬로건으로 앞세운 평창올림픽에

는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5000여 명에 달하는 선수단이 참가해 15개 종목에 걸린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에 나선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총 12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실상 종목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보강스노 경기장, 용평 알파인, 알펜시아 스키·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치러진다. 빙상 종목은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아이스 아레나, 강릉·관동 하키센터, 강릉 컬링 센터에서 열린다. 6곳은 새로 만들고 있고, 나머지 6곳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게 된다. 경기장 건설에 투입되는 돈은 총 8723억원 규모다.

개·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 플라자는 평창 대관령면 일원에 건립된다. 사업비 1477억원이 투입되는 올림픽 플라자는 3만5000석 규모로 1만석만 영구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2만5000석은 임시 시설로 지어진다.

성공 개최를 위한 ‘실전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 지난 2월부터 실상 종목을 중심으로 ‘테스트 이벤트’가 시작됐다. 내년 4월까지 종목별 테스트 이벤트만 28차례 치러진다.

가장 먼저 지난 2월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는 2016 아우디 국제스키연맹(FIS) 스키 월드컵이, 이어 평창 보광위닉스파크에서는 2016 FIS 프리스타일 스키·스노보드 월드컵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오는 11월에는 2016 FIS 스노보드 월드컵 빅에어 종목의 테스트 이벤트가 열리고 12월에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를 시작으로 내년 2월 ISU 스피드스케이팅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와 ISU 피겨 4대륙 대회를 통한 빙상 종목 테스트 이벤트가 이어진다.

/연합뉴스